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A



정답 및 해설

천재

박영목

1

마음을 담은 언어

(1)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1~019쪽

- 01 (1) ○ (2) ○ (3) × (4) × (5) ○
- 02 ㉠ - ㉡, ㉢ - ㉣, ㉤ - ㉥, ㉦ - ㉧ 03 언어 예절
- 04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 05 ㉢ 06 ㉤ 07 ㉠, ㉡
- 08 • 준언어적 표현: 말의 속도, 목소리의 크기, 어조 • 비언어적 표현: 몸짓, 시선, 표정 09 ㉢ 10 ㉢, ㉣, ㉤ 11 건의
- 12 ㉢ 13 ㉤ 14 가 - ㉢, 나 - ㉣, 다 - ㉠
- 15 다
- 16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듣기·말하기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17 ㉤ 18 ㉤ 19 ㉠: 상황, ㉡: 배려, ㉢: 듣기·말하기
- 20 ㉢: 준말, ㉤: 비밀번호

- 01 (3)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4)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
- 04 수진은 대화할 때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 05 사과를 할 때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탓하는 말을 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06 '휴대 전화 화면을 보며 성의 없이'가 비언어적 표현인데, 철우는 이를 통해 무성의하게 인사하고 있을 뿐 다음부터 늦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차가 막히는 걸 어떡해?"에서 알 수 있다. ② '짜증스러운 어조로'에서 알 수 있다. ③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에서 알 수 있다. ④ "그리고 늦는다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 주냐?"에서 알 수 있다.
- 07 ㉠: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 09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요구만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부탁하는 말하기로 적절하지 않다.
- 10 ㉠: "짜짜하게 굴지 말고 좀 해 줘."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 줘."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오답 해설 ㉠: 명천이와 연호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경어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 13 지역 간, 세대 간, 그리고 개인 성향의 차이 때문에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17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 방언보다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다.
- 18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신이 쓰던 지역 방언을 그대로 사용되되,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20쪽

- 03 대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5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 10 부탁을 할 때에는 부탁하는 까닭을 설명하면서 솔직하고 공손하게 얘기해야 한다.
- 14 공적인 상황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다.
- 15 말하기 상황, 개인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말하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22~027쪽

- 1 ㉤ 2 ㉣ 3 ㉣ 4 ㉣ 5 ㉤
- 6 ㉣ 7 ㉣ 8 ㉤ 9 겸양의 격률
- 10 ㉤ 11 ㉤ 12 동의의 격률 13 ㉡
- 14 ㉢ 15 ㉠: 준언어적, ㉡: 비언어적

- 1 각자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세대, (나)는 지역, (다)는 개인 성향에 따른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 2 (가)의 글쓴이는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민주는 할머니 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잘 알지 못해 오해하였다.
- 3 (나)는 지역 간의 언어 차이와 관련된 상황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모두 사회 방언의 사례이다.
- 4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강유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과 사과로 시진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에서 알 수 있다. ② "그 옷은 내가 무척 아끼는 옷이라 좀 그런데……."에서 알 수 있다. ③ "네 말을 들으니 빌려줄 마음이 싹 사라졌어."에서 알 수 있다. ⑤ "이제 됐지?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에서 알 수 있다.

1 ㉔	2 ㉒	3 ㉑	4 ㉔	5 ㉒
6 ㉔	7 ㉑	8 ㉔		
9 사람마다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10 해설 참고 11 해설 참고 12 ㉑ 13 해설 참고 14 ㉔				
15 해설 참고				

5 대화를 할 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기 위해 대화 내용의 정당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보기>에서는 눈의 크기나 방향, 손 모양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대화의 흐름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적절한 내용이지만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② 몸짓을 과장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짓을 지나치게 과장하면 오히려 신만하고 경박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③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⑤ 같은 언어 공동체라도 비언어적 표현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7 ④에서는 ‘좀’을 사용하여 청자의 부담을 덜고 있고(㉑), ‘얼어 주시겠어요?’와 같이 물음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㉒).

오답 해설 ①, ③ ‘좀’을 사용하고 있지만(㉑), 물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② 물음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㉒), 청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청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표현과 물음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8 ㉔는 협력의 원리가 아닌 공손성의 원리를 어기고 있는 대화이다. 즉, A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공손하지 않게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B는 A의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며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③ B는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하며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④ B는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9 겸양의 격률은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다.

10 규용은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며 그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11 <보기>는 순서 교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㉔에서 동우는 원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끊으며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보기>와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민지가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지 않는 상황이다. ② 지역 방언과 표준어로 대화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③ 의사들이 전문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④ 딸이 어머니의 말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12 동의의 격률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13 이 선생님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지킨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④ 김 선생님의 말은 요령의 격률을 지키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14 ㉔는 서준이 엄마의 말을 끊어서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지 않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② 엄마가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④ 엄마가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공손성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엄마가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1 (나)에서 나정과 윤진이 암울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나정이 예로 든 상황에서 성균과 호준의 대답 모두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선준은 재준이 나정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를 모르고 있으므로, 지역의 언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호준은 선준에게 “아랫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불러.”라며 남부 지방의 화법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③ (가)에서 나정 어머니와 나정 아버지는 ‘마이’, ‘느그나’, ‘오매’ 등과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④ (나)에서 호준은 여자 친구의 말과 행동에 담긴 속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2 ㉑: ‘어머이’는 ‘어머니’의 지역 방언이다. ㉒: 선준은 남부 지방에서 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정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은 나정과 그 부모님에 대한 친근함과 배려의 표현이다.

오답 해설 ㉓: 나정의 부모님과 선준이 대화하고 있으나 세대 간 차이로 인한 대화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㉔: (가)에서 호준은 선준에게 남부 지방의 화법을 알려 주고 있을 뿐, 선준의 화법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3 위로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부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히 말해야 한다. ㉔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있지 않으며, 공손히 말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잠깐만’, ‘좀’, ‘들어 줄래?’(㉑), ‘가능하다면’, ‘좀’, ‘도와줄 수 있니?’(㉒), ‘네가 괜찮다면’(㉓), ‘조금’, ‘가르쳐 줄 수 있을까?’(㉔)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표현이다.

5 ㉑: “쪼쪼하게 굴지 말고 좀 해 줘.”라며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다. ㉒: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청소를 대신 해 달라고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㉓: 상대방의 상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㉔: 여러 가지 화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6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하며,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④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거나 부탁하는 까닭을 말하지 않은 채 요청만 하는 것은 바른 부탁의 자세가 아니다. ②, ③ 앞부분에서는 공손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해(라)’와 같은 명령형을 사용함으로써 공손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7 찬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한 후 강당 정리를 같이 하자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③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배드민턴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니?”라는 지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감사의 표현을 글의 서두와 말미에서 반복하고 있다. ② 놀임의 격조사(께, 께)와 경어체를 사용하여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2문단에서 1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강당에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모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공평하게 강당을 이용한다면 교장 선생님이 강조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9 글쓴이는 떡볶이를 같이 먹자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으나, 친구는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다.

10 **모범 답안**

글	쓴	이	는	'	생	파	'	를	생	일	파	티	의	의	
미	로	사	용	했	지	만	,	할	아	버	지	는	'	생	파
를		'	의	히	지	않	은	파	'	로	생	각	했	다	.
이	러	한	차	이	가	나	타	나	는	이	유	는	세	대	
간	에	말	하	기	방	식	이	다	르	기	때	문	이	다	.

11 **모범 답안**

주	원	은		선	생	님	께	건	의	할	때	상	대	방		
이	요	구	를	들	어	줄	수	있	는	상	황	인	지			
먼	저	살	피	지	않	았	으	며	,	건	의	하	는	까	닭	
도	구	체	적	으	로	밖	히	지	않	았	다	.	또	한		
상	대	방	을	고	려	하	지	않	고	특	정	세	대	에	서	
주	로	쓰	는	'	취	존	'	,		'	노	잼	'	,	'	안
습	'	등	의	어	휘	를	사	용	함	으	로	써	대	화	가	
제	대	로	이	루	어	지	지	않	았	다	.					

12 <보기>에서 아버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①의 은미도 자신의 글씨가 약필이라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민정은 관용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③ 평수는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④ 경래는 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⑤ 경희는 요령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13 고치기 전의 사과는 변명을 하며 상대방을 탓하고 있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을 쓰며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모범 답안

사	과	를	할	때	에	는	잘	못	을	구	체	적	으	로
밖	히	고	미	안	하	는	표	현	을	분	명	히	해	야
한	다	.	또	한	변	명	을	늘	어	놓	거	나	상	대
방	을	탓	하	지	말	아	야	하	며	,	준	언	어	적
비	언	어	적	표	현	에	유	의	해	야	한	다	.	

14 방학식이 언제냐는 선미의 질문에 철수는 정확하게 7월 28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오늘 날짜를 묻는 질문에 성문은 어제 날짜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어겼다. ② 저녁 메뉴에 대한 질문에 해은은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④ 옷의 가격에 대한 질문에 점원은 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⑤ 민서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다.

15 **모범 답안**

컴	퓨	터	부	팅	이	잘	안	된	다	고	하	는		
등	준	에	게	나	영	은	사	과	를	하	기	는	했	지
원	래	바	이	러	스	에	결	렸	던	것	일	수	도	있
다	며	핑	계	를	대	고	있	다	.	또	한	등	준	이
컴	퓨	터	를	잘	못	관	리	한	것	처	럼	이	야	기
며	등	준	을	탓	하	고	있	어	진	심	으	로	잘	못
을	누	우	치	고	있	다	는	느	낌	을	주	지	않	는
다	.													

(2) 소통하는 글쓰기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39~041쪽

- 01 ㉔ 02 ㉑ 03 ㉑ - ㉒ - ㉒ - ㉒ - ㉒
- 04 ㉑ - ㉑, ㉑ - ㉑, ㉑ - ㉑
- 05 • 첫 번째 이유: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이다.
• 두 번째 이유: 기와를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이다.
- 06 ㉔
- 07 나비의 꿈 - ㉑ - ㉑, 너나들이 - ㉑ - ㉑, 역사 대장 - ㉑ - ㉑
- 08 ㉑: 댓글, ㉑: 소통 09 보물 1호

- 01 영훈이가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직접 발견한 기와와 그에 관련된 경험을 진솔하게 쓴 글이다.
- 02 영훈이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가 마당에서 기와를 발견했을 뿐, 경복궁 내에서 청기와를 찾은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2의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도 ~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에서 영훈이가 주변 친구들에게 기와를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③ 1의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2에서 알 수 있다. ⑤ 3에서 알 수 있다.
- 06 영훈이는 처음에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기와를 발견한 후 그것이 조선 시대의 유물일지도 모른다고 하여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인터넷과 책을 통해 청기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유산 전문가로부터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한 후,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충분한 조사와 반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42쪽

- 02 영훈이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리다가 우연히 돌조각을 발견했다.
- 03 영훈이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관 지어 기와를 조선 시대의 청기와라고 생각했다.

- 07 영훈이는 문화유산 전문가를 직접 만나러 갔다.
- 10 영훈이는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기와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소중히 간직했다.
- 12 같은 글이라도 독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수용된다.
- 14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44~049쪽

1 ①	2 ③	3 ②	4 ③	5 ④
6 ③	7 ②	8 ⑤	9 ②	
10 ㄱ-ㄴ-ㄹ-ㅁ-ㄴ-ㄷ 11 인용				

12 같은 글이라도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수용되기 때문이다.

- 1 청기와와 관련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영훈이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성격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세종실록》,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3 인터넷 블로그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독자 역시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다양한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제작, 소비할 수 있다. ④ 인터넷 블로그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⑤ 인터넷 블로그에는 문자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실을 수 있다.
- 4 광해군 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 5 친구들은 영훈이가 발견한 기와가 경복궁 청기와가 맞는 것 같이라며 놀라워하고 있지만, 영훈이가 친구들과 토론을 하여 새로운 정보를 획득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영훈이는 도서관의 관련 책을 통해 《세종실록》,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에 청기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았다. ② 영훈이는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였다. ③ 영훈이는 할아버지 덕마당에서 기와를 발견한 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았던 청기와와 연관 짓고 있다. ⑤ 영훈이는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의 유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직접 찾았다.
- 6 영훈이는 청기와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깨달았다.
- 7 ㉔: '할아버지 덕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에서 알 수 있다. ㉕: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 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㉑: 기와는 영훈이의 손바닥만 하다고 했다. ㉒: 할아버지 덕에서 청기와를 발견한 것일 뿐, 할아버지가 청기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8 ㉑는 '숨씨가 설고 어설피게'라는 뜻이다.
- 9 영훈이가 청기와를 발견한 경험과 이에 따른 깨달음을 소개하는 수필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다.
오답 해설 ① 영훈이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③ 청기와를 발견한 영훈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④ 역사적인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⑤ 청기와라는 대상에 대한 영훈이의 관점만 서술되어 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50~055쪽

1 ⑤	2 ②	3 ④	4 ③	5 ⑤
6 ⑤	7 ①			

8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글을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9 ㄱ-ㄴ-ㄹ-ㅁ-ㄴ-ㄷ-ㄴ 10 해설 참고 11 해설 참고 12 해설 참고

- 1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훈이가 처음 자료를 조사한 매체는 인터넷으로, 인터넷은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영훈이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 청기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 청기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니다. ② 친구들은 기와가 조선 시대의 청기와 같다는 영훈이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③ 영훈이는 기와를 집으로 가져와 전문가에게 직접 갖고 갔다. ④ 영훈이는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 2 ㉔: 영훈이는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청기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호기심과 설렘을 갖고 있었다. → ㉕: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청기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기대감이 커져 갔고,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청기와임을 확신했다. → ㉖: 문화유산 전문가로부터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 시대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감을 느꼈다. → ㉗: 기와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성했다.
- 3 '경조부박(經佻浮薄)'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하여 가벼움을 일컫는 말이다. 영훈이는 기와가 조선 시대 청기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들뜬 나머지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이 다름. ②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 ③ 안하무인(眼下一無人):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⑤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 4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 대장'이다.
오답 해설 ① '광해군 대 이후로 ~ 왜 없는 걸까요?'에서 알 수 있다. ② '영훈님의 글과 ~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에서 알 수 있다. ④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해요.'에서 알 수 있다. ⑤ '역사 대장은 청기와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했으며, 영훈이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 권위 있는 학자의 이론을 인용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맞아요 저도 그래요'를 통해 '너나들이'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② '꼭 가 봐야겠네요'를 통해 창덕궁 선정전에 가 보라는 '역사 대장'의 추천 내용을 실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③ '제 글이 너나들이 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를 통해 '너나들이'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 ④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를 통해 '나비의 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 '나빌레라'는 영훈이가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한 것,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본 것,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해서 찾아간 것 등을 중심으로 호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너나들이'도 '저도 평소애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라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② '나빌레라'와 다른 독자들 모두 영훈이의 생각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③ '나빌레라'와 다른 독자들 모두 영훈이의 경험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④ '나빌레라'와 다른 독자들 모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7 영훈이는 ㉠에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화 상황을 사실감 있고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10 모범 답안

인	터	넷	매	체	는	문	자	,	사	진	,	영	상
등	다	양	한	형	태	의	자	료	를	바	탕	으	로
보	가	쌍	방	향	적	으	로	소	통	되	는	데	반
인	쇄	매	체	는	영	상	형	태	의	자	료	를	활
하	지	못	하	며	정	보	가	일	방	향	적	으	로
된	다	.											

11 모범 답안

(나)	에	서	영	훈	이	와	독	자	들	은	덧	글	을
통	해	글	에	대	한	반	응	을	나	타	내	며	의	견	
을	교	환	하	고	있	다	.	이	를	통	해	쓰	기	는	
의	미	를	구	성	하	여	소	통	하	는	사	회	적	상	호
작	용	임	을	알	수	있	다	.							

12 모범 답안

기	와	가	진	짜	유	물	인	지	확	인	하	는	과	정
을	통	해	삼	의	교	훈	과	소	중	한	깨	달	음	을
얻	음	으	로	써	,	그	기	와	가	버	릴	수	없	는
소	중	한	물	건	이	되	었	기	때	문	이	다	.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1)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_정기용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61~065쪽

- 01 ㉠ 02 ㉡: 교감, ㉢: 감성, ㉣: 조경, ㉤: 부수
03 나, 다
04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들이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 그늘이다. 05 (1) ○ (2) ○ (3) ○ (4) × (5) ×
06 ㉢ 07 ㉤
08 (1) 최대한 공사비를 줄이고자 하였다. (2)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 게끔 배려하고자 하였다. 09 ㉠, ㉤
10 • 첫 번째 감응: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사람과 사람의 감응)
• 두 번째 감응: 글쓴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숲에서 얻은 감응(자연과 사람의 감응) 11 ㉠: 등나무, ㉡: 풍경 12 ㉢, ㉣

01 건축가인 글쓴이가 등나무 운동장을 만들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떠올린 건축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의 특징이다. ③ 희곡, 시나리오, 소설의 특징이다. ④ 희곡과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⑤ 시의 특징이다.

02 ㉠의 내용을 참고한다.

03 오답 해설 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도와주는 것은 건축의 역할이다. 라: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건축이라는 작업의 특징이다.

05 (4) 가림막은 본부석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5) 등나무가 너무 빨리 자랐기 때문에 군수는 글쓴이에게 등나무의 집을 지어 줄 것을 요청했다.

06 군수는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질문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관중석에 가림막이 없기 때문임을 파악한 후 관중석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등나무를 심는다. 이런 모습을 통해, 군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공설 운동장의 관중석에는 가림막이 없어서 주민들이 군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려 등나무로 그늘을 만들려고 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다. ②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에서 자연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④ 공설 운동장의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고 한 것에서 권위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을 알 수 있다. ⑤ 군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그늘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07 등나무가 살려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사람이 아닌 등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08 ㉢의 1문단을 참고한다.

09 구조물을 등나무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하였으며, 관중의 시선을 고려하여 원호의 꼭짓점 높이를 정하였다.

12 **오답 해설** ㉔: 본부석의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고 대형 화면을 설치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㉕: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는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66쪽

- 01 모더니즘 건축은 공간을 중심 요소로 여기고 자연을 부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문제가 있다.
- 04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 05 공설 운동장의 관중석에는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이 없어 불편했기 때문이다.
- 07 글쓴이는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을 만들고자 했다.
- 09 글쓴이는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는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원호의 꼭짓점을 정하고자 했다.
- 11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과 글쓴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응이 합쳐져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났다.
- 12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어 권위적인 느낌을 완화시켰다.
- 13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68~073쪽

- 1 ⑤ 2 ② 3 ⑤ 4 ⑤ 5 ②
- 6 모더니즘 건축: ㄱ, ㄴ /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축: ㄴ, ㄷ
- 7 권위주의
- 8 등나무를 심어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 9 가림막이 본부석에만 있고 관중석에는 없으므로, 관중석에서는 햇볕을 피할 수 없어 불편하기 때문이다. 10 ② 11 ④
- 12 ③ 13 ③

1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서술할 수필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모더니즘 건축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다양한 건축 이론의 차이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2 글쓴이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바람직한 건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③ 모더니즘 건축, 즉 현대 건축의 관점이다.

3 ㄷ: 군수는 관중보다 주최 측을 고려하는 공설 운동장의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했다. ㄹ: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나무를 심었다.

오답 해설 ㄱ, ㄴ: 등나무에 감응하고 등나무의 집을 설계한 사람은 글쓴이이다. ㄷ: 군수는 주민들에게 군내 행사에 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뿐, 그들에게 실망한 것은 아니다.

4 ㉔에는 등나무 줄기의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㉕에도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고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③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④ 역설법과 함께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5 '밀연적'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이 그리될 수밖에 없는'을 뜻한다.

10 이 글은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 운동장에 그늘지붕을 만든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1 ㉔은 자연이 돋보이도록 하는 구조물로, 건축은 자연이 돋보이도록 도우며, 그 조화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조경으로, 이는 자연을 부수적이고 인공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②, ③ 자연과 건축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가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 ⑤ 자연을 부수적으로 여기며 건축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은 모더니즘 건축의 문제이다.

12 '무아지경(無我之境)'은 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를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속수무책(束手無策):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하나가 됨. ④ 막무가내(莫可奈何): 달리 어찌할 수 없음. ⑤ 무념무상(無念無想):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을 떠남.

13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는 것은 권위적인 느낌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글쓴이가 등나무에서 얻은 감응과는 거리가 멀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74~079쪽

- 1 ① 2 ① 3 ④ 4 ④ 5 ①
- 6 자연, 사람, 건축 7 식물을 닮게 설계했다.
- 8 ㉔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9 해설 참고 10 해설 참고 11 해설 참고

1 등나무 운동장은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곳으로, 도심과 자연의 경계를 뚜렷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2 ㉔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반영하지 않고 글에 나타난 내용에만 공감한 것이다.

3 등나무 운동장은 조명 시설을 갖추어 밤이 되면 등나무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등나무가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등나무가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 잘 자랐다는 의미로, 그곳에서 밤마다 마을 잔치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4 '감응'의 정의는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 사람, 건축이 서로 감응하고 있기 때문에 ㉠은 다른 대상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 리, 모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나과 드은 일방적인 행위이다.

5 군수는 공설 운동장 주변에 등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려고 했는데, 등나무가 군수의 생각보다 빨리 자란 것은 감응과 관련이 없다.

9 모범 답안

㉠	는	군수	가	기	존	운동	장에	대한	주
민들의	의견을	경청	하고	경	청	하고	주	민	들을
대안을	고민	한	것	이	고	,	㉠	는	글
허공	에서	허우	적	대	는	등	나	무	의
며	등	나	무	를	위	한	집	을	지
결	심	한	것	이	다	.			

10 모범 답안

글	쓰	는	자	연	을	부	수	적	인	측	면	으	로
여	기	는	현	대	모	데	니	즘	건	축	의	문	제
지	적	하	며	변	화	하	는	자	연	의	특	성	을
한	건	축	을	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한	다	.
건	축	은	자	연	을	훼손	하	는	것	이	아	니	라
자	연	이	주	가	되	게	해	야	한	다	는	글	쓰
의	생	각	과	,	자	연	을	본	받	아	이	를	건
에	반	영	해	야	한	다	는	가	우	디	의	생	각
유	사	하	다	고	불	수	있	다	.				

11 모범 답안

사	회	적	대	화	로	서	의	글	읽	기	란	단	순
글	의	내	용	의	정	답	을	발	견	하	거	나	감
받	는	것	을	넘	어	서	는	행	위	이	다	.	즉
적	극	적	인	태	도	로	자	신	의	경	험	이	나
지	식	,	사	회	적	상	황	이	나	문	화	적	관
등	을	고	려	하	며	글	을	읽	는	것	이	다	.
한	,	이	러	한	글	읽	기	를	바	탕	으	로	사
구	성	원	과	소	통	하	며	상	호	작	용	하	는
다	.												

(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

허생전_박자원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83~095쪽

- 01 ㉠ 02 ㉠ 03 ㉠: 수양, ㉡: 과거(입신양명)
- 04 ㉠: 내면, ㉡: 비범, ㉢: 보통 사람들, ㉣: 걸모습 05 ㉣
- 06 기, 나, 르 07 이상국
- 08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09 ㉡
- 10 ㉠-㉡, ㉢-㉣, ㉤-㉥ 11 기, 르
- 12 글을 아는 양반 사대부가 백성을 착취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 13 (1) ㉠ (2) × (3) × (4) ㉠ (5) ㉠ 14 ㉡
- 15 ㉢ 16 재앙 17 ㉢ 18 ㉡
- 19 ㉠: 한 가지, ㉡: 여러 가지 20 ㉠: 집권층, ㉡: 인재 등용
- 21 (1) ㉠ (2) ㉠ (3) ㉠ (4) × (5) × 22 ㉤
- 23 ㉤ 24 ㉠: 임금, ㉡: 중실, ㉢: 훈척과 권귀
- 25 ㉢ 26 ㉡ 27 ㉠: 부국강병, ㉡: 노력
- 28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법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았다.

- 01 허생의 아내는 허생이 집안의 생계에는 관심없이 계속 책만 읽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02 허생은 변 씨에게 만금을 빌려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시도를 하고자 한다. 즉, 허생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변 씨에게 만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변 씨는 허생에게 바로 만금을 빌려주는데, 이를 통해 변 씨의 배포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허생이 변 씨에게 만금을 빌리면서 돌의 인연이 시작된다.
- 05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없어서 도적이 된 것으로, 사회 부조리 척결의 움직임과는 관련이 없다.
- 06 르: 과일을 모두 사들이자 과일이 없어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를 열지 못한다. 이를 통해 당대의 양반들은 예법에 얽매어 있고 허례허식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 08 결혼하여 살림을 차리고 발농사를 지으면, 부부의 즐거움은 물론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 도적이 되지 않아도 된다.
- 09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섬으로 간 것은 이상국 건설을 위해서로,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섬으로 이주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에서 알 수 있다. ②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에서 알 수 있다. ④ “허생이 도적들 모두 쓸어 가지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도적들이 “어찌 그런 생활(장가를 들어 살림을 정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을 뿐이요.”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10 도적들이 양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11 ㄱ: 장기도에 식량을 팔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ㄴ: 빈 섬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으로 풍요로움을 이루었다.

오답 해설 ㄴ: 조선의 경제 규모가 적음을 확인한 것은 빈 섬에 오기 전에 한 일이다. ㄷ: 사람의 인성 변화에 대한 시험은 허생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13 (2)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은 만 금인데 그 열 배인 십만 냥을 돌려주자 변 씨가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다고 했을 뿐, 변 씨가 허생의 돈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3) 허생은 사재기를 통해 큰돈을 벌었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14 늙은 할미는 허생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가 떠난 뒤 허생의 아내가 오 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등을 변 씨에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15 허생은 관념적인 허폐허식에 얽매어 있던 당시의 무능한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구분을 없애고 신분 계급을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허생은 비록 사재기로 큰돈을 벌었지만 자신은 정사치가 아니며, 돈을 도를 살찌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2, 4) 이처럼 허생은 사농공상에 대한 뚜렷한 계급 의식을 통해 재물에 구애받지 않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 5)

17 허생은 자신의 행위가 능력보다는 하늘에 달린 것이며, 자신을 활용하는 사람 역시도 하늘이 명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허생은 자신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재주보다는 하늘의 뜻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허생이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외국과의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고 유통 구조가 취약한 조선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독점 자본의 폐단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④, ⑤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하지 않는 집권층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8 변 씨의 질문에 대해, 허생은 지금까지의 행동의 이유와 근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변 씨는 허생과의 대화를 통해 허생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도록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허생은 큰돈으로 한 가지 물건을 사재기하여 큰 이익을 얻었지만, 이러한 사재기 방법은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라며 그 폐단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0 허생은 조성기와 유형원 같은 인물을 예로 들어 이러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던 당시 집권층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21 (4) 이완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 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5) 허생은 이완을 밖에 세워 둔 채 변 씨와 둘이 술을 마셨다.

22 허생은 이완을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고 그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며 그를 시험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이완에게 전하면서 그를 꾸짖고 있다.

23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오답 해설 ㉠은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용성 있게 노력한다는 의미(㉠)로, 중국 삼국 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초옥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한다.

25 명나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허생은 먼저 청나라와 교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대부들이 지키고자 하는 예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나라의 지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허생이 제시한 개혁 방안은 허구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다.

28 변오기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무령왕은 적과 싸우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입어 예법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96쪽

01 허생은 영웅적 인물이 아니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되어 있지도 않으며, 미완의 결말로 맺고 있다.

02 갈등의 해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03 작가는 유교적 허폐허식을 증시하는 현실을 비판할 뿐, 유교적 가치관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07 변 씨는 허생이 이인(異人)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돈을 빌려주었다.

08 조선은 만 금으로 나라의 과일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 구조가 취약하였다. 또한 허생이 장기도에 가서 해외 무역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이를 활발한 해외 무역이라 볼 수 없다.

09 집권층의 무능으로 도적들을 토벌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드러날 뿐,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양반 계층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11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 친명배척의 허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으나, 전통을 수립해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1 ㉓ 2 ㉓ 3 ㉓ 4 ㉓ 5 ㉓

6 ㉓

7 "인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8 ㉓ 9 ㉓ 10 ㉓

11 (1) 허생의 아내의 말로 보아, 당시 선비들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글을 읽었다. (2) 허생의 말로 보아, 허생은 글 읽는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즉 자신의 학문을 증진하기 위해 글을 읽었다.

12 이완을 포함한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예법, 명분을 포기하면서 서까지 북벌을 추구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3 ㉓

14 ㉓ 15 ㉓ 16 장유유서

1 허생은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명분 대신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하는 한편, 명나라의 후손들을 후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명나라를 멀리해야 한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허생은 군도들에게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를 장만해 오라고 하는데, 이는 가정을 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② 허생이 도적들을 모두 쏘어 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는 것을 통해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④ (나)에서 허생은 변 씨에게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라며 화를 내고 있다. ⑤ (라)를 통해 알 수 있다.

2 <보기>에는 패접패적으로 인한 쌀값의 폭등을 막기 위한 정조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박지원의 논리가 드러난다. 즉, 이 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는 사회, 경제를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완은 명분이나 기득권, 예법을 포기하면서까지 북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오답 해설 ② 허생의 아내가 양반인 허생에게 생계를 위해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를 하라는 것에서 당시에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변 씨는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층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4 허생의 아내가 현실적·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선비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허생에게 도적질이라도 하라는 것으로 보아 윤리성을 중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5 ㉓은 (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화근을 없애야 한다며 글을 아는 자들을 섬에서 데리고 나왔다. ②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에서 알 수 있다. ④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에서 알 수 있다. ⑤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에서 알 수 있다.

6 허생은 ㉓에서 자신이 꿈꿔 온 이상국을 실험해 보고자 했다.

오답 해설 ㉓: 빈 섬에서의 이상적 사회 구현 시도를 의미한다. ㉔: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를 상징한다. ㉕: 숨어 있는 인재를 천거하면 임금이 나서서 받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㉖: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중화사상의 관점에서 본 당시의 조선을 가리킨다.

8 [A]는 사재기를 통해 허생이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허생이 돈을 번 방법과 그것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허생이 ㉑~㉔ 이 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나 [A]와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9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을 이르는 말로, ㉑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㉔: 허생이 자신이 장사꾼으로 여겨지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에서 작가의 계급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10 ㉓은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뜻한다.

13 빈 섬은 이상 국가 건설에 대한 작가의 꿈이 드러난 공간이지만, 그것이 도교적 세계관과 관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㉓ (가)에서 아내에 의해 비판을 받던 허생은 명분과 실리를 중시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주제로 변모하고 있다.

14 허생은 해외 무역을 통해 벌고 남은 돈으로 백성들을 구제했다. 사재기는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가 부각되게 하는 계기이다.

오답 해설 ①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라는 허생의 말은 그의 계급적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5 허생은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허실을 엿본 후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㉓ 2 ㉓ 3 ㉓

4 글을 아는 자들이 훗날 섬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 해설 참고 6 ㉓ 7 ㉓

8 (1) 숨어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훈척과 권귀의 기득권을 비판한다.

1 작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상국을 지향하고 있지만, 유교적 가치관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실존 인물인 이완을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⑤ 허생의 아내가 양반인 허생에게 생계 유지를 위해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봉건적 신분 질서가 해체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 ㄱ: 허생이 허름한 차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람됨을 보고 만 금을 빌려준 변 씨는 대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폐포파립(敝袍破笠): 헤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 허생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통해 재물에 뜻을 두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ㄷ: 장인바치, 장사를 못 한다는 허생을 질책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허생의 아내가 실용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후생(利用厚生):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오답 해설 ㄴ: 허생은 변 씨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됀됨이를 알아본 변 씨 덕에 만 금을 빌릴 수 있었다. [호연장담(豪言壯談):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 ㄷ: 허생은 과거나 출세와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 독서를 했던 사람으로, 당초 10년을 계획했던 글 읽기를 중간에 못 하게 되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입신양명(立身揚名):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3 ㉠은 허생이 이상국 건설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④ 허생은 ㉠의 존재를 늙은 뱃사공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은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를 통해 길동이 이미 알고 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5 **모범 답안**

행	색	은	초	라	하	지	만	,	재	물	에	욕	심	이
없	고	땀	땀	한	마	음	을	지	닌	비	범	한	인	물
이	라	고	생	각	한	다	.							

6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걸락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에서 보편적 원리를 제시한 후에,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를 통한 현실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 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道)를 살찌우기야 하겠소?"에 상인 계층을 하찮게 여기는 허생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② (나):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오"에서 사재기의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상인들이 자신의 방법을 따라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 졸수제 조성기나 반계 유형원 같은 실존 인물들 예로 들어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⑤ (마): 이완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을 질책하고 있다.

7 <보기>는 '삼고초려(三顧草廬)'에 대한 설명이다. 허생은 인재 등용을 위해 임금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신상필벌(信賞必罰):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 ③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④ 삼천지교(三遷之教):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 ⑤ 심사숙고(深思熟考): 깊이 잘 생각함.

(3) 독서 과정을 성찰하며 책 읽기
 초신성의 후에 _이석영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21~123쪽

- 01 ① 02 ①
- 03 ㉠-㉢, ㉠-㉤, ㉠-㉥, ㉠-㉦, ㉠-㉧
- 04 짧게, 고온, 무거운
- 05 (1) ○ (2) × (3) × (4) ○ (5) ○ 06 ㉡
- 07 유추 08 ㉠, ㉡

- 01 핵심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가 학생과 주고받은 대화를 인용하여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③ 조지 가모 교수의 실험 결과를 활용하였다. ④ 각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량의 크기순으로 분류(수소·헬륨 → 탄소·질소·산소 → 황·인·마그네슘·철)하여 설명하였다. ⑤ 글 전체에 걸쳐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다.
- 02 수소가 물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 05 (2)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나온 원소들 덕분에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다. (3) 초신성이 폭발할 때 일부 물질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의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 06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잘 이해해야 한다. 즉, 글쓴이는 초신성과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07 초신성 폭발이라는 자연 현상에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 내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08 ㉠: 초신성이 우주에 환원한 원소들을 통해 생명체가 태어났으므로 우리 모두는 같은 본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초신성처럼 사회에도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존재들이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24쪽

- 01 우주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초신성의 역할을 설명하고, 초신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다.
- 04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사람 몸 전체의 63퍼센트를 차지한다.
- 05 철, 마그네슘, 나트륨은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이다.
- 07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든다.
- 08 작은 별들은 수명을 다하면 탄소 덩어리가 된다.
- 10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산다.
- 11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12 일부 물질은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26~131쪽

- 1 ② 2 ③ 3 ⑤ 4 ③ 5 ⑤
- 6 ② 7 ④ 8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 9 초신성이 없었다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며, 우주에는 무기물만이 존재했을 것이다. 10 ② 11 ③ 12 ④
- 13 읽기 후 활동
- 14 자신이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사람이다.

- 1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어휘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시를 읽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 2 유추를 통해 초신성의 특성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문제 상황이나 대안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현대 우주론을 설명할 뿐 그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④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다의어나 언어유희는 사용되지 않았다.
- 3 (마)의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는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으로, 독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4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수소가 만들어진다.
- 5 글쓴이는 초신성처럼 자신의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 6 초신성이 우주에 원소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는 무기물 우주가 된다. 따라서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지 않는 <보기>의 상황은 ②로 설명할 수 있다.
- 7 이어지는 내용에서 초신성이 원소를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에는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10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 11 내용 요약은 읽기 후에 해야 하는 활동이다.
오답 해설 ① 글의 흐름이나 구성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②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④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⑤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으며 읽는 활동이다.
- 12 ㉠은 ‘연설하는 사람’을 뜻한다.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은 ‘은사(恩師)’의 뜻이다.
- 13 <보기>는 글쓴이가 쓴 다른 글을 읽어 보는 연관 독서에 해당한다.
- 12 천재 박영목 | 정답 및 해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32~135쪽

- 1 ⑤ 2 ④
- 3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글쓴이가 상식, 통념과 다른 새로운 관점, 의도를 제시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 4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한다.
- 5 ④ 6 ③ 7 해설 참고 8 해설 참고

- 1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오답 해설 ① 작은 별들은 100억 년 가까이 사는 반면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산다. ②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③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④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 2 ㉠은 과학 원리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으로, 불가능한 일을 제안하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 5 초신성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화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술, 지식, 능력 등도 나눌 수 있다.
- 6 앞에서 초신성이 우주에 환원한 원소들 덕분에 인간이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지구상의 인구가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⑤ 글의 시작 부분에 제시된 질문은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지만, ㉠은 지구상의 인구가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했음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7 모범 답안

한	대	상	을	다	르	유	사	한	대	상	에	기
하	여	설	명	하	는	유	추	의	방	식	을	사
있	으	며	,	이	를	통	해	초	신	성	이	폭
원	소	들	을	우	주	에	환	원	함	으	로	써
명	을	탄	생	시	킨	것	과	같	이	,	자	신
진	재	화	·	기	술	·	능	력	등	을	사	회
해	야	한	다	는	교	훈	을	제	시	하	고	있
												다

8 모범 답안

초	신	성	이	폭	발	하	면	서	대	부	분	의	물	질	이
우	주	에	환	원	되	었	는	데	,	이	러	한	원	소	들
기	원	이	되	어	인	간	과	생	명	체	를	탄	생	시	켰
다	.	결	국	,	지	구	상	의	모	든	인	구	는	초	신
성	폭	발	로	인	해	하	나	의	분	을	지	닌			
형	제	라	고	할	수	도	있	다	.						

3

우리말 바로 쓰기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41~147쪽

- 01 (1) ○ (2) ○ (3) × (4) ○ (5) ○ 02 ①
- 03 ㉠ - ㉡, ㉢ - ㉣, ㉤ - ㉥
- 04 (1) 설랄 (2) 줄림끼 (3) 실라 (4) 광할루 05 ①, ⑤
- 06 ⑥
- 07 (1) [마디] → [마지] (2) [소티] → [소치] (3) [해도디] → [해도지]
- 08 ㉠: ㅓ, ㉡: ㅣ 09 ㉢: [입꼬], ㉣: [남따] 10 ②
- 11 ㉠과 ㉡ / ㉢과 ㉣ 12 ① 13 유행, 익명
- 14 (1) ○ (2) ○ (3) × 15 ③
- 16 (1) ㅎ+ㄷ → [트] (2) 자+ㅎ → [차] (3) 가+ㅎ → [카] (4) 바+ㅎ → [파]
- 17 (1) [아퀸], [호리타다] (2) [추커], [노코]

01 (3) 음운의 변동은 표기가 아닌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02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상, 거센소리되기, ‘ㅎ’ 탈락 등의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04 (1), (2) ㄹ + ㄴ → ㄹ + [ㄴ] (3), (4) ㄴ + ㄹ → [ㄴ] + ㄹ

05 된소리되기는 단어를 발음할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것(①)이며, 단어의 발음과 상관없이 표기할 때는 예사소리 그대로 표기(⑤)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된소리되기는 음운의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③, ④ 된소리되기는 음운의 변동 중에서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06 **오답 해설** ① [국수] ② [합뽕] ③ [삼파] ④ [엽집]

07 <보기>는 받침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인 [스, 츠]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의 예이다.

08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필요하다.

09 ‘입꼬’는 앞 음절의 받침 ‘ㅍ’ 뒤에서 ‘ㄱ’이 된소리로, ‘남따’는 어간의 받침 ‘ㄷ’ 뒤에서 어미의 자음인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10 ‘잡목[잠목]’은 ‘ㅂ’이 비음 ‘ㅃ’ 앞에서 [ㅃ]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이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쓰+어서 → 써서: 모음 탈락 ③ 녀세 → 연세: 두음 법칙 ④ 례의 → 예의: 두음 법칙 ⑤ 타+아라 → 타라: 모음 탈락

11 ㉠과 ㉡은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며, ㉢과 ㉣은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ㄱ’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12 두음 법칙은 발음과 표기에 모두 반영되는 현상이다.

13 유행 → 유행, 익명 → 익명

오답 해설 ‘남녀’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자리에 ‘녀’가 쓰였으므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질리]’는 유음화, ‘책생[채쌍]’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이다.

14 (3) 반모음 첨가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이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15 ‘기어’는 [기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ㅣ̣’를 첨가하여 [기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오답 해설 ① 법학[법학]: 거센소리되기 - 음운의 축약 ② 진리[질리]: 유음화 - 음운의 교체 ④ 국개[국개]: 된소리되기 - 음운의 교체 ⑤ 나서+어서 → 나서서: 모음 탈락 - 음운의 탈락

16 ‘ㅎ’과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ㅈ’이 만나 각각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17 밑줄 친 단어들은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48쪽

03 비음은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04 ‘ㄱ, ㅋ, ㆁ’, ‘ㄷ, ㅌ, ㅌ’, ‘ㅂ, ㅃ, ㅍ’은 파열음에 해당한다.

09 ‘국밥’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국뽕]이므로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여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0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

13 ‘여자’를 본음대로 표기하면 ‘녀자’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

14 ‘피어’는 [피어/피여]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50~153쪽

1 ①	2 ④	3 ②	4 ④	5 ④
6 ②	7 ④	8 ④	9 ③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 '공란[공난]'은 'ㄹ'이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남루[남누]: 비음화 - (가) ③ 들늬[든느]: 비음화 - (가) ④ 팔도[팔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 (라) ⑤ 국가[국까]: 된소리되기 - (라)

2 '열정[열정]'은 된소리되기보다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의 밑줄 친 단어들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3 '진리'는 [질리]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 중 유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잠그-+-아 → 잠가: 모음 탈락 - 음운 탈락 ③ 축하[추카]: 거센소리되기 - 음운 축약 ④ 이오[이오/이요]: 반모음 첨가 - 음운 첨가 ⑤ 리별 → 이별: 두음 법칙 - 음운 탈락

4 ㉠: 'ㄴ, ㅁ'만 해당한다.

5 앞 음절의 받침에 'ㄹ'이 오고 뒤에 'ㄴ'이 오면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② 'ㄴ'과 'ㄹ'이 만나는 '신라[실라]'에서 보듯이 'ㄴ+ㄹ'의 경우에도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유음화가 일어나도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⑤ 'ㄷ'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ㄴ]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

6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뀐다.

7 '물받이'는 [물바지]로 발음되며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만형[마형]: 거센소리되기 ② 끝애[꼬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③ 각씨[각씨]: 된소리되기 ⑤ 좁히면[조피면]: 거센소리되기

8 '껴안고[껴안꼬]'는 '껴안다'가 활용하면서 어간 '껴안-'의 받침 'ㄴ' 뒤에서 어미 '-고'의 'ㄱ'이 [ㄴ]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일어난다.

9 '따르- + -는'에서는 'ㄴ'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았-+-다 → 담갔다: 'ㄴ' 탈락 ② 아프-+-아서 → 아파서: 'ㄴ' 탈락 ④ 모으-+-아라 → 모아라: 'ㄴ' 탈락 ⑤ 크-+-어서 → 커서: 'ㄴ' 탈락

10 '유용(有用)'의 '유(有)'는 본음이 '유'이다.

오답 해설 ① 로인 → 노인 ② 락원 → 낙원 ④ 녁명 → 익명 ⑤ 려사 → 역사

11 '비어서'는 [비어서/비여서]로 둘 다 발음되는데, [비여서]는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발음이다.

오답 해설 ① 가-+-아서 → 가서: 모음 탈락 ③ 관련[팔련]: 유음화 ④ 갈등[갈똥]: 된소리되기 ⑤ 뉘면세[뉘면세]: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12 표준 발음법 제22항 '해설'에 따르면 'ㄹ, ㅍ'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반모음 'ㅇ'이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어'는 [개여]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물리어'는 [물리어/물리여]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 ② '아니오'는 [아니오/아니요]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 ③ '눕었다'는 [눕었다/눕었다]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 ④ '되어'는 [되어/되여]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

13 거센소리되기는 '법학[버팍]', '만형[마형]'처럼 명사에서도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② 여사소리가 'ㅎ'과 만나 거센소리로 바뀐다. ⑤ 'ㅎ'과 'ㄱ, ㄷ, ㅂ, ㅈ'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운(ㅋ, ㅌ, ㅊ, ㅌ)으로 줄어든다.

- 1 ㉠ 2 ㉡ 3 ㉢ 4 ㉣: 비음화, ㉤: ㄹ, ㉥: ㄴ
5 ㉦: 해도지, ㉧: ㄷ, ㉨: ㅈ
6 • 발음: [피어/피여] • 음운 변동 현상의 종류: 음운의 첨가
7 • 발음: [조피면] • 음운 변동 현상: 거센소리되기
8 • 음운 변동 현상: 유음화 • 개념: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ㄴ]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9 • 음운 변동 현상: 모음 탈락 • 개념: 어떤 모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이다.
10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 ㅁ'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된다. 11 해설 참고
12 해설 참고

1 ㉠은 어간 말 자음 'ㄹ'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ㄴ,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2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겹받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을 발음할 때 겹받침에서 어느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 외괄[외괄/웨괄], 짚다[짚:파], 짚고 굵게[짚꼬굵게]

3 받침 'ㄱ' 뒤에 자음 'ㄱ, ㄷ, ㅂ, ㅅ, ㅈ'이 오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폭발'은 [폭뵐]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어떻게'는 '어떻다'의 부사형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므로 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잡그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므로 '잡가'로 적어야 한다. ㉢: 한자음 '란'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두음 법칙에 따라 'ㄴ'으로 표기하므로, '곤란한'으로 적어야 한다. ㉣: '곤란한'은 '곤'의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ㄴ]로 발음되므로, [골란한]으로 발음해야 한다.

6 '피어'가 [피여]로도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ㅇ'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7 '좁'의 받침 'ㅂ'과 뒤 음절의 첫소리 'ㅎ'이 만나 [ㅍ]으로 발음되고 있다.

8 월내[월래] / 실내[실래] / 난로[날로]

9 꼬- + -어라 → 꺼라: 'ㄴ' 탈락

11 **모범 답안**

자	음	군	단	순	화	가	적	용	되	어	㉠	에	서	는																			
[ㅂ	는]	으	로	발	음	되	고	,	비	음	화	가	적	용	되	어	㉡	에	서	는	[ㅂ	는]	으	로	발	음	된	다	.

12 **모범 답안**

구	개	음	화	는	받	침	이	'	ㄷ	,	ㅌ	'	인	형		
대	소	가	모	음	'	ㅣ	'	나	반	모	음	'	ㅣ	로		
시	작	하	는	형	식	형	태	소	와	만	나	면	각	각		
구	개	음	인	[ㅈ	,	ㅊ]	으	로	바	뀌	어	발		
되	는	현	상	이	다	.	그	런	데	㉢	에	서	는	발		
과	결	합	하	는	형	식	형	태	소	가	모	음	'	ㅣ		
나	반	모	음	'	ㅣ	'	로	시	작	하	지	않	기	때		
문	에	구	개	음	화	가	일	어	나	지	않	은	것	이	다	.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61~163쪽

- 01 ㉔ 02 ㉑ 03 ㉑: 표준어, ㉒: 소리, ㉓: 어법
 04 ㉑-㉒, ㉑-㉒, ㉑-㉒, ㉑-㉒ 05 ㉑
 06 ㉑ 07 돕기는 커녕 → 돕기는커녕
 08 (1) 그녀가 한 번 더 내게 손을 내밀었다. (2) 나는 어름이면 항상 바다로 휴가를 간다.

- 01 소리대로만 적으면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붙인 것이다.
- 02 ‘꼬치’는 ‘꽃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그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어법에 맞게 ‘꽃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㉑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제5항) ㉒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㉓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제15항 [붙임 1]) ㉔ ‘수피’라고 적을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 05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되므로 단어로 인정된다.
- 06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㉑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㉒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㉓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㉔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07 ‘느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돕기는커녕’으로 붙여 써야 한다.
- 08 (1) ‘한번’은 ‘1회’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한 번’과 같이 띄어 쓴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64쪽

- 03 표음주의 표기는 쓰기에는 편하지만 뜻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 05 ‘땅’, ‘하늘’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 06 ‘굳이’는 표의주의 원리가 반영된 표기이다.
- 08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09 어미와 접미사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12 받침 ‘ㄱ, ㅂ’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14 ‘안 됩니다’가 옳은 표기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66~171쪽

- 1 ㉑ 2 ㉒ 3 ㉔ 4 ㉑ 5 ㉑
 6 ㉑ 7 ㉑ 8 ㉑ 9 ㉒ 10 ㉑
 11 ㉑ 12 ㉑ 13 (1) 힘내십시오 (2) 밭치다 (3) 입은 채
 14 ㉑

1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은 우리말 중 표준어이다.

오답 해설 ㉒ 소리 나는 대로 ‘거러’, ‘건는’으로 쓰지 않고 ‘걸어’, ‘걷는’으로 쓰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㉓ 표준어를 소리대로만 적으면 그 뜻을 알기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㉔ 단어는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므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2 ㉑: 살리다, 동굴, 검정, 아기, 하늘 / ㉒: 먹는다[명는다], 북극점[북극점], 꽃밭[꽃밭], 밭는다[밭는다], 짝사랑[짝사랑]

3 ㉑은 용언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발음이 달라지는 예이다. ‘떡다’도 활용하면서 ‘떡다[떡따], 먹어[머저], 먹니[멍니]’ 등으로 발음이 달라진다.

오답 해설 ㉒ ‘세다’는 활용하더라도 발음이 달라지지 않는다.

4 ‘걸음’의 발음은 [거름]으로, 표기와 다르다. 이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에 해당한다.

5 ‘차’는 ‘어떤 기회에 겹해서’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㉒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말하는’ 뒤에서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㉓ ‘만큼’은 의존 명사와 조사가 있는데, ‘볼만큼보았다’의 ‘만큼’은 ‘그런 정도로’나 ‘실컷’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㉔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이다.

6 ‘날씨가 추운데’의 ‘데’는 연결 어미의 일부이므로 의존 형태소이지만, ‘그 책을 다 읽는 데’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오답 해설 ㉑: 첫 번째 문장의 ‘뿐’은 조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뿐’은 의존 명사이다. ㉒: 첫 번째 문장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자립 형태소이고, 두 번째 문장의 ‘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7 ‘집안’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 또는 가까운 일가’를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㉑는 ‘집안의 재앙을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와 같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㉒: ‘못하다’는 보조 동사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㉓: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이다. ㉔: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㉕: ‘북쪽’과 ‘숲속’은 각각 한 단어이다.

8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제41항을 적용하여 ㉠은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 한다.

오답 해설 ㉠: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제41항을 적용해야 하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 ㉡: '원'은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을 적용하여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정정할 필요가 없다. ㉢: '줄'은 어떤 방법, 설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을 적용해야 하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 ㉣: '7 연구실'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제43항 '다만'을 적용하여 '7연구실'과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9 '듯'은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즉, '잠을 잔 듯 만 듯 정신이 하나도 없다.'로 써야 한다.

10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건물을 튼튼하게만 지어라. ② '뿐'은 '다만 어떠한가나 어떠한 때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그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④ '시'는 차례가 정하여진 시각을 이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네가 몇 시쯤 도착할 것인지를 알려 줘. ⑤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고양이가 집을 나간 지 나흘 만에 돌아왔다.

11 '하늘'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다.

오답 해설 ① 빗[빈] ② 옷[온] ③ 잎[입] ④ 바깥[바깸] → 모두 소리대로 적지 않았다.

12 확률: '쿨'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지 않으므로 '쿨'로 적어야 한다. / 고운 피부가 돼요: '돼요'는 '되어요'의 준말이다. / 옷 다릅니다: 옷 뒤에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라는 뜻의 '다리다'를 써야 한다. / 불을 붙이다: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라는 뜻의 '붙이다'를 써야 한다.

오답 해설 선술 → 선율 / 남녀노소 → 남녀노소 / 민밋하고 → 민맛하고 / 야단 법석 → 야단법석

13 (1) 정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가 아니라 '-십시오'이다. (2) 받치다: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다. / 받치다: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3)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4 <보기 1>에서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에는 표음주의를 채택한다고 했다. ㉠은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어간에 어미 '-아'가 붙을 때 '갈라'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먹고'를 분석하면 '먹-+고'이고, 기본형인 '먹다'를 분석하면 '먹-+다'이다. 따라서 '먹고'와 '먹다'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 '줄'은 어간인 '줄-', 어미인 '-아'의 형태를 밝혀 적고 있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 '사라지다'는 '살다'와 '지다'가 연결어미 '-아'에 의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합성어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 '칩다'는 어간에 어미 '-고'가 붙을 때는 '칩고'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지만, 어간에 어미 '-으니'가 붙을 때는 '쉬우니'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본문 172~177쪽

소단원 심화 평가

1 ㉢	2 ㉡	3 ㉤	4 ㉡	5 ㉤
6 ㉢	7 ㉠			

8 소식이 끊긴 지 오랜만에 살아서 나타나다니, 정말 세상에는 꿈만 같은 일도 더러 있는가 보았다.

9 열무를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강아지도 집을 나간 지 한 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엄마는 안 오시네.

10 · 잘못된 표기: 뭍씨 → 몹씨 · 잘못된 이유: '몹씨'는 [몹씨]로 발음되지 않는 '몹'의 받침 'ㅍ'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 5항 '다만'에 따라 된소리로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1 해설 참고

12 해설 참고 13 ㉢

1 ㄱ: 붙이다 - '붙다(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사동사 / ㅋ: 부치다 -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오답 해설 ㄴ: 붙이다 - '붙다(불이 옮겨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 / ㄷ: 부치다 -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겨야 말기다.

2 '팍팍이'에서 '팍이'는 '팍다'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3 '삼발이(둥근 쇠 테두리에 발이 세 개 달린 기구. 화로(火爐)에 놓고 주전자, 냄비, 작은 솥, 번철 따위를 올려놓고 음식을 끓이는 데 씀.)'가 옳은 표기이다. 제20항에 따르면 '삼발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고랑: 골+-앙 ③ 모가지: 목+-아지 ④ 터럭: 털+-억 → 모두 제 20항의 [붙임]에 해당하는 예이다.

4 ㉠은 '엷히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쉽게 어법대로 적어야 하고, ㉡은 '얇히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5 '늑커녕'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째'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갈다'는 형용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대로'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6 '합격율'은 '합격률'로 고쳐야 한다.

7 정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오십시오'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 없앴다 → 안앴다(안치다: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린다.) ㉢ 붙여야 → 부쳐야(부치다: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 맛있든지 → 맛있던지 ㉤ 더우기 → 더욱이

11 모범 답안

		'	-	'	는	중	결	어	미	로	문	장	을	중	결
시	키	는	역	할	을	하	며	,		'	-	'	는	연	결
어	미	로	여	러	대	상	들	을	얼	거	할	때	쓰	는	다

12 모범 답안

	<	보	기	>	는	㉠	과	관	련	되	어	있	다	.	죽
㉠	에	서	두	개	의	용	언	이	어	울	려	한	개		
의	용	언	이	필	적	에	,	앞	말	의	본	뜻	이		
유	지	되	고	있	는	것	은	그	원	형	을	밖	히	어	
적	으	라	고	했	으	므	로	,		'	틀	어	지	다	들
밀	다	,	남	아	채	다	'	와	같	이	표	기	한	것	이
다	.														

13 '쏟어먹다'는 '쏟어'와 '먹다' 사이에 '서'를 넣을 수 있으므로(쏟어서 먹다)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오답 해설 ㉠ '헛가방'은 '헛 내 가방'과 같이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올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 '높고가다'는 '높고'와 '가다' 사이에 '서'를 넣을 수 있으므로(높고서 가다)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 '뜯소문'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라는 의미로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면 의미가 변하므로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알아듣다'는 '남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다.'의 의미로 구성 요소의 배열이 순차적이지 않아 ㉠에 해당하는 합성어이며, 합성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3)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81~185쪽

- 01 ㉡ 02 ㉠, ㉢, ㉣ 03 ㉠ - ㉢, ㉢ - ㉣, ㉢ - ㉣
 04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 뒤에 말이 있다. / 말만 귀양 보낸다. /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 온다. 등
 05 (1) × (2) × (3) ○ (4) ○ 06 ㉣
 07 ㉠ - ㉢, ㉣ / ㉢ - ㉣, ㉣ 08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09 ㉣ 10 ㉢
 11 ㉠: 듣기, ㉢: 말하기, ㉣: 사회, ㉣: 문화 12 ㉢, ㉣

- 01 담화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바뀌기도 하고, 시대에 맞춰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 02 오답 해설 ㉢: 이 만화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5 (1)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마음에 해롭다. (2) 때에 맞게 말하면 말이 간결할 수밖에 없다.
- 06 말하기에 대한 이이와 이덕무의 바람직한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하기에 잘못된 점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
- 08 이이는 때에 맞게 말을 하며 말을 간결하게 하라고 하였고, 이덕무는 말을 험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9 바람직한 담화 관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르게 듣고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0 담화 관습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변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1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통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 12 과거의 담화 관습은 현재 자신의 의사소통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86쪽

- 02 속으로만 애태우지 말고 시원스럽게 말해야 한다는 뜻이다.
- 04 이이는 사람을 대할 때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06 이덕무는 말을 험하게 하거나 남을 평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07 과거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10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은 겸양의 말하기이다.

11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은 돌려 말하기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88~193쪽

1 ④ 2 ② 3 ① 4 ④ 5 ⑤

6 ② 7 ③ 8 도(道) 9 지현

10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1 언어문화 12 돌려 말하기

13 (1) 헤리: •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인선: •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장난스럽게 말하였다. •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하는 말을 하였다.

14 • 당사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신도 같은 상황에서 남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과거에 형성된 담화 관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라진 것도 있다.

오답 해설 ② 담화 관습에서의 '담화'는 듣기·말하기와 글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담화 관습은 말하기나 글쓰기에 관련된 규칙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2 ㉠은 '잔말이 많으면 집안 살림이 잘 안됨.' 또는 '그렇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않음.'의 뜻을 가진 속담이다.

3 ㉠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세에 유리하다는 뜻의 '말로 온 공을 갚는다.'와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③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④ 상대방이 말을 고맙게 하면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 주게 된다는 말 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4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①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임의적인 관계이다. ② 한정된 말소리나 단어로 무수히 많은 단어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③ 언어는 의미라는 내용과 말소리 혹은 문자라는 형식이 결합된 기호로 나타난다. 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이다.

5 이 만화에서는 말을 간결하게 하고 험프지 않게 말하며 남을 평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즉, 말하기 실력의 유창성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6 ㄱ: 이이는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해롭다고 했다. ㄷ: 이덕무는 남을 평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했다.

오답 해설 ㄴ: 이이는 때에 맞게 말하면 말이 간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7 ㉠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몰래 말하다가 그 사람이 마침 들어서 불편하게 된 상황이다. 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속담으로는,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홍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의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이다.

오답 해설 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②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나 마땅히 할 말을 도리어 남이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유모는 지현에게 부인의 말을 전하고 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94~201쪽

1 ③ 2 ③ 3 ⑤ 4 ③ 5 ⑤

6 ② 7 ⑤ 8 ⑤ 9 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③

14 ㉠은 말을 적게 할 것을, ㉡과 ㉢은 할 말이 있으면 시원스럽게 말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담화 관습은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을 가려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15 해설 참고

16 해설 참고

1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과거의 담화 관습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김 선생은 친구의 인색한 대접에 재치 있게 돌려 말하고 있다. 즉, 닭을 빌려 타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으로, 이는 벗의 인색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출연자는 혁명적 존재라는 뉴스 진행자의 칭찬에 과찬의 말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5 선생님이 헤리를 싫어한다는 표현은 근거가 없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아마 네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고 밝아서, 선생님께서 너만 떠든 것으로 오해하셨나 봐."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6 'ㄱ'은 '강추'와 '괜찮(다)'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형태가 완전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③ 문장 부호를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7 ㉠은 운이 좋거나 상서로운 날을 뜻하는 말로, 겸양의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남을 높여 이르는 말 ㉡: 자신이 거쳐하는 방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니 ㉣: 황홀하고 두렵습니다

8 <보기>에 비속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ㅇㅇ', '짐'을 통해 알 수 있다.

9 겸양의 말하기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는 말을 줄여서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어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담화 관습이다. ④은 축하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도움과 염려를 먼저 칭찬하는 어법이 사용되었으므로 겸양의 말하기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③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표현이다. ④, ⑤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요청하는 표현이지만, 겸양의 말하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10 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말을 할 때 이 네 가치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가: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한다고 하였다. 나: 말을 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바: 선한 사람이 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1 '십필지목(十伐之木)'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음을 이르는 말로, 말과 관련된 한자 성어가 아니다. 또한 글의 맥락과도 맞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② 화중구생(稱從口生): 원래 화(稱)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말을 심가야 함을 이르는 말 ③ 도청도설(道聽塗說):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⑤ 살은 쓰고 주위도 말은 하고 못 좁는다: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심가야 한다는 말

12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며느리에게 빨래를 걷어 오라는 의미의 발화로, 돌려 말하기에 해당한다.

13 ③은 잔디를 밟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의 '아파요'는 ③의 '아파요'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자신의 마음이 슬픈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15 모범 답안

(가)	에	서	는	상	대	방	이	하	는	말	을	귀
기	울	여	들	는	것	을	강	조	하	고	있	다 .
편	(나)	에	서	는	상	대	방	이	하	는	말	을
신	중	하	게	판	단	하	며	가	려	들	는	것
하	다	는	것	을	강	조	하	고	있	다 .		

16 모범 답안

특	별	한	근	거	없	이	상	대	방	을	비	방	하	는
악	의	적	인	덧	글	을	말	았	고 ,	의	성	어	를	축
약	하	여	자	음	으	로	만	나	타	내	었	다 .		

1 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202~207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⑤
- 06 ②
- 07 · ⑥에서 어기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 요령의 격률 · 고쳐 쓴 대화: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정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끼리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요. 08 ③
- 09 ⑤ 10 ④ 11 ④ 12 ④
- 13 사회적 상호 작용 14 ①
- 15 삶의 경험과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하여

01 글쓴이의 경험을 직접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다)에서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로 내용을 항목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사과를 할 때에는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사과를 할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손함을 갖추는 것이 기본 자세이다.

03 <보기>는 재영이가 사회에게 어제 조별 모임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영이는 변명과 상대방 탓, 억지 사과 등으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재영이는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를 사용하고 있다. ⑤ 재영이는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04 준언어적 표현은 말의 어조, 속도, 목소리 크기 등을 말하며,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몸짓, 시선 등을 말한다. <보기>는 민수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므로 큰 목소리로 동작을 크게 하며 적극적으로 연설에 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우회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우회적 말하기가 아닌 직접적 말하기를 통해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고민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가~다 모두 표준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② 가은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 나은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 다은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로 인해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이다. ③ 가은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다. ④ 나은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고민인데, 모든 상황에서 사투리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나)에서, 대화를 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③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08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교훈을 얻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삶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지는 않다.

09 경험을 언급하겠다는 것은 (나), 즉 내용 생성하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활동이다.

오답 해설 ③ 여러 매체, 즉 책,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마련한 배경지식은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10 인터넷 매체는 많은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호 소통의 매체이므로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다.

11 전문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인트칠을 한 현대 기와와 청기와는 매끄러움의 차이로 설명될 뿐 색깔의 차이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근정전과 사정전에 청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② '평해군 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글쓰기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 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에서 알 수 있다.

12 '역사 대장'은 글쓰이의 글에 대해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평가하며 창덕궁 선정전이 청기와를 올린 건물이라고 소개하고는 있으나, 글쓰이의 글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평해군 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와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왜 없냐는 '나비의 꿈'의 질문에 글쓰이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이라며 답하고 있다. ② '영훈 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와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글에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라는 '나비의 꿈'의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너나들이'의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독자들은 글쓰이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긍정적으로 느낀 면을 쓰고 있고, 글쓰이 또한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추가 정보를 얻고 있다.

13 글쓰이가 블로그에서 독자에게 의미를 구성하여 전달하고 독자는 댓글로 그 의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통해,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알 수 있다.

14 질문은 면담 목적에 맞아야 하며 간략한 것이 좋다.

15 면담 대상자가 할머니라는 점에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2 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208~212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5 본부석은 그들이 지는 데 반해, 관중석은 햇볕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06 ②	07 ①	08 ④	09 ⑤
10 변 씨는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비범한 안목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반면 변 씨 집의 지체들, 손님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11 ①			
12 ②	13 ③	14 C - L - G	
15 당신은, 싫은가?			

01 L: 글쓰이는 군수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R: 글쓰이는 공사비를 줄이는 것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을 초점을 두어 설계를 했다.

오답 해설 G: 주민들은 군내 행사에 거의 오지 않았다. C: 무주 공설 운동장은 초록 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 놓았다고 했다.

02 (나)에는 등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을 짓겠다는 글쓰이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나)의 소개목으로는 '식물을 달게 설계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03 군수는 공설 운동장에서 느껴지는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설 운동장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

오답 해설 ①, ③ 군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듣게 되었다. ② 군수는 글쓰이에게 이미 심어 놓은 등나무의 집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04 ①의 의미는 '눈이나 마음 따위에 만족스럽지 않고 언짢다.'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걸리다'는 ④이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틀리다. ② 시간이 들다. ③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가 달리다. ⑤ 말이 막히다.

06 G: 희생은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에는 관심이 없이 책만 읽었다. C: 희생은 변 씨에게 만 원을 빌렸지만 나중에 십만 원을 갚았다.

오답 해설 L: 변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만 했지 자신이 돈을 쓸 계획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R: 희생은 돈이 사람의 도를 살피울 수 없다고 했다.

07 변 씨는 처음 보는 희생에게 큰돈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범한 인물이다.

오답 해설 ④ 변 씨는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한다. 그런데 변 씨가 희생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아니므로 변 씨의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지는 알 수 없다.

08 ㉠은 희생이 가지고 있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희생은 재물보다 도를 우위에 두고 있으며, 몸보다 정신이 살찌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9 ㉡는 변 씨가 희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오답 해설 ㉠~㉡는 변 씨를 지칭하는 말이다.

11 G: 글쓰이와 학생이 나누었던 대화 장면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L: 글의 중간중간에서 질문을 던진 후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답을 밝히고 있다.

12 ㉠의 앞 내용을 보면 작은 별이 최후에는 단단한 탄소 덩어리가

된다고 하였다. 즉,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 탄소이며 경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 같이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다이아몬드가 있는 죽은 별은 중력이 워낙 세서 착륙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안전한 장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3 무기물 우주는 생명체가 없는 우주이다. 초신성이 폭발하며 우주에 환원한 원소들 덕분에 인간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없었다면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14 각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량의 크기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3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213~216쪽

01 ㉠	02 ㉡	03 ㉢	04 [널떠], [넙쭈카다]
05 ㉣	06 ㉤	07 조사	08 ㉥ 09 ㉦
10 · 고친 표현: 힘내십시오 → 힘내십시오 · 고친 이유: 정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가 아니라 ‘-십시오’이기 때문이다. 11 ㉧			
12 ㉨	13 ㉩	14 ㉪	15 ㉫

01 ‘박하[바카]’는 ‘ㄱ’이 ‘ㅎ’과 만나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음운의 축약)가 일어난 단어이다.

오답 해설 ㉡~㉤ ‘입구[입꾸]’, ‘책상[책쌍]’, ‘갈등[갈똥]’, ‘국밥[국뻬]’은 모두 원소리되기(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단어이다.

02 ‘달히다’는 거센소리되기(음운의 축약)에 의해 [다티다]로 발음되고, 다시 구개음화에 의해 [다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 진리[질리]: 유음화 ㉡ 축구[츠크구]: 원소리되기 ㉢ 잡히다[자피다]: 거센소리되기 ㉣ 물난리[물랄리]: 유음화

03 ‘좋아도’는 [조:아도]로 발음된다.

05 ‘극적이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극적이다]로 발음되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극찌기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 ‘삼림’은 비음화(㉠)에 의해 [삼님]으로 발음된다. ㉡ ‘밟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밟:는]으로 발음되고, 다시 비음화(㉢)에 의해 [밟:는]으로 발음된다. ㉢ ‘잡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잡:다]로 발음되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잡:때]로 발음된다. ㉣ ‘뱃속’은 비음화(㉣)에 의해 [뱃속똥]으로 발음되고, 된소리되기(㉤)에 의해 [뱃속똥]으로 발음된다.

06 ‘꽃’은 [꼰]이라고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08 ‘거품’은 어간에 접사가 붙어 품사가 바뀐 단어가 아니다.

오답 해설 ㉠, ㉢, ㉣, ㉤ 어간에 접미사 ‘-이’나 ‘-음’이 붙어 명사로 바뀌면서 단어의 의미가 본래의 뜻에서 멀어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사례이다.

09 ‘-빼기’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물건’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오답 해설 ㉠ 싹둑 ㉢ 늘그막 ㉣ 딱따구리 ㉤ 빼꾸기

11 속담을 통해 선조들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12 <보기>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속담으로, 상대방의 처지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말을 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

13 (가)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삼가고 최대한 말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때에 맞게 말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나)는 남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이 위험함을 말하면서 말이 야기하는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14 과거와 현재의 담화 관습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가 있으므로, 둘을 비교하여 하나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다른 하나를 폐기할 필요는 없다.

15 ‘노야’, ‘누실’, ‘왕림하시니’, ‘황공합니다’ 등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지현이 청혼 승낙 사실을 유 소사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있지만, 청혼 후 승낙 받은 내용을 편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을 당시의 담화 관습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지현이 사 소저와 사 소저 부친을 칭찬하고는 있지만, 이는 청혼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조건 칭찬한 것이 아니다. ④ <보기>에서는 청혼하기 위해 청혼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말을 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청혼을 위해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보기>에서는 지현이 바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⑤ 사 소저는 계급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한 것이 아니다.

1~3단원 통합

최종 점검 모의고사

본문 217~229쪽

- 01 순서 02 ①
 03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탓하고 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② 06 ③ 07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
 08 ③ 09 ③ 10 ⑤
 11 (1)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응이다. (2) 글쓴이가 등나무에게서 얻은 감응이다. 12 ② 13 ③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③ 20 ①
 21 ③ 22 '-기-'가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 23 ⑤
 24 ④ 25 ⑤

02 ㉠은 사과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준언어적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③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이라는 재영이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재영이는 개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라는 소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04 (가)~(다)는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하여 발생한 상황이다. 따라서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답변할 수 있다.

05 (가)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① (가):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말해야 한다. ③ (나):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지만,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어를 써야 한다. ④ (다): 친구가 우회적인 표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⑤ (다): 듣기·말하기 방법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06 ‘경험 - 깨달음’의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청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등을 제시한 것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리꾼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건 페인트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글의 주제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이다.

08 이 글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작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가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경험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한 것에 해당한다. ② 독자가 낱말이나 구절을 중심으로 글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이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글을 읽으며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해당한다. 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09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통해 글쓴이가 공사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구조 지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가벼운 원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⑤ 군수가 본부석이 지닌 권위주의적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글쓴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통해 본부석의 권위적인 느낌을 완화시키려는 생각을,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 원호의 꼭짓점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를 통해 관중들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10 ⑤는 무인의 호탕한 기개를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②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③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④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를 노래하고 있다.

12 허생이 개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양반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생각은 지니고 있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허생이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했으나 이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 사대부들의 허위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③ 허생이 사대부의 자제들을 번갈아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로서의 명분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④ 이완이 허생의 첫 번째 계책(임금이 삼고초려하여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거절한 것은 인재 등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고, 두 번째 계책(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야 함.)과 세 번째 계책(청나라와 교류해야 함.)을 거절한 것은 대외영분과 여법에만 얽매인 양반들을 비판한 것이다. ⑤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 치욕도 씻을 수 있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3 허생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은 명분이 아닌 실리를 증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허생은 흥길동처럼 서민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지 않고 그들을 돕기만 했으므로, 자신이 선비라는 의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흥길동은 서민들을 돕기만 한 허생과는 달리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가 돕는 아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고 끝에 가서 승리했다고 했다. ④, ⑤ 허생은 자신이 제시한 계책들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라져 버리는데, <보기>에서는 이를 현실을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 효종의 죽음과 함께 폐기된 복벌 계획을 이 글에서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 당시의 현실과 사대부를 성토했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③ <보기>의 ‘<허생전>에서 복벌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것을 이용해 당시의 현실과 사대부의 태도를 성토했기 위함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이완은 효종대의 실존 인물로, 이러한 이완을 등장시켜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⑤ 허생이 제시한 시사 삼책은 당시의 지배 계층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으므로 허생이 사라지는 것으로 결말을 처리한 것이다.

15 허생이 사라졌다는 결말은, 그의 현실 개혁 방안이 당대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웠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것이 허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허생이 사라지고 간 곳이 없었다는 결말을 통해 그의 행적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③ 허생이 사라짐으로써 이전에 그가 보여 줬던 이인다운 행동이 더 부각되고 있다. ④ 허생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허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통해, 그의 가치관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허생이 사라짐으로써 현실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여운을 느낄 수 있다.

16 허생이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한 것은, 청나라의 허실을 옹고 한족과 결탁함으로써 천하를 도모하여 나라의 치욕을 씻기 위함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연쇄적인 관계가 아니다. 단지 ㉢을 거절하자 ㉣을 제시하고, ㉣을 거절하자 ㉤을 제시한 것이다. ② 허생이 ㉣에 대해 ㉠이나 ㉢보다 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③ 이완이 ㉢을 거절한 이유는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은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방안으로, 명나라 군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17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원소들의 예를 들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 방안, 한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글쓴이와 학생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③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하여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한 초신성에서, 자신이 이론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사회와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유추해 내고 있다. ④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등과 같이 질문을 던진 후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답을 밝히고 있다.

18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 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해 탄소,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 산소 등을 만든다.

오답 해설 ① 수소가 제일 가볍고 황, 인, 철 등이 가장 무겁다. ② 수소는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온 우주에 고루 뿌려졌다. ③ 헬륨은 작은 별들이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④ 황, 인이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무거운 별은 저온이 아닌 고온이다.

19 ㉠은 교체, ㉡은 축약, ㉢은 탈락, ㉣은 첨가에 해당한다. ‘안지’는 ‘ㄴ’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오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안:찌]로 발음되므로, 탈락이 아닌 교체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옆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이 ‘ㅂ’으로 바뀌고(옆집), ‘ㄷ’이 ‘업’의 ‘ㅂ’의 영향을 받아 원소리로 바뀌어 [옆집]으로 발음되므로, 교체의 예이다. ② ‘값싼’은 ‘값-’의 끝소리 ‘ㅂ’의 ‘ㅎ’이 뒤에 오는 ‘ㄷ’과 만나 ‘ㅌ’으로 합쳐져 [안턴]으로 발음되므로, 축약의 예이다. ④ ‘날은’은 ‘날-’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과 결합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아 [나은]으로 발음되므로, 탈락의 예이다. ⑤ ‘맨입’은 앞말인 ‘맨-’이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뒷말 ‘입’이 ‘ㄴ’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첨가의 예이다.

20 ㄱ의 ‘먹는’은 어간 ‘ㅍ-’의 끝소리 ‘ㄱ’이 어미 ‘-는’의 첫소리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멍는]으로 발음된다. ‘돕는’도 어간 ‘ㅌ-’의 끝소리 ‘ㅂ’이 어미 ‘-는’의 첫소리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돔는]으로 발음된다. 즉, ㄱ에서는 어간의 자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미의 자음인 비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설날’은 ‘설’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날’의 첫소리 ‘ㄴ’이 [ㄹ]로 바뀌어 [설:랄]로 발음되므로, 앞 자음이 뒤 자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겉눈’은 ‘눈’의 첫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겉’의 끝소리 ‘ㅂ’이 [ㅁ]으로 바뀌어 [겉눈]으로 발음되므로, 뒤 자음이 앞 자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ㄷ: ‘권력’은 ‘력’의 첫소리 ‘ㄹ’을 닮아 ‘권’의 끝소리 ‘ㄴ’이 [ㄹ]로 바뀌어 [권력]으로 발음되므로, 한 자음이 어느 한쪽의 자음을 닮아 그와 같은 소리로 바뀐 것이다. 또한 ‘꽃망울’은 ‘꽃’의 끝소리 ‘ㄷ’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망’의 첫소리 ‘ㅁ’을 닮아 [ㄴ]으로 바뀌어 [꼇망울]로 발음되므로, 한 자음이 어느 한쪽의 자음을 닮아 그와 비슷한 소리로 바뀐 것이다. ㄷ: ‘발는다’는 ‘발’의 끝소리 ‘ㄷ’이 ‘는’의 첫소리 ‘ㄴ’을 닮아 [ㄴ]으로 바뀌어 [반는다]로 발음되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자음을 닮는 경우이다. 반면 ‘설리’는 ‘리’의 첫소리 ‘ㄹ’이 ‘설’의 끝소리 ‘ㅂ’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설니]가 되고, 다시 ‘설’의 끝소리 ‘ㅂ’이 ‘니’의 첫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어 [설니]로 발음되므로,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 경우이다. ㄷ: ‘밥물’은 ‘밥’의 끝소리 ‘ㅂ’이 ‘물’의 첫소리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어 [밤물]로 발음되는데, 이는 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동화이다. 그런데 ‘밥 먹느냐’에서도 ‘밥’의 끝소리 ‘ㅂ’이 ‘먹’의 첫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어 [밤명느냐]로 발음되므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때도 동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1 ‘영업용’은 ‘ㄴ’이 첨가되어 [영업농]이 되고 비음화에 의해 ‘업’의 ‘ㅂ’이 [ㅁ]으로 바뀌어 [영업농]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웃맵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웃’의 ‘ㅌ’이 [ㄷ]으로 바뀌어 [온맵시]가 되고 비음화에 의해 ‘울’의 ‘ㄴ’이 [ㄴ]으로 바뀌어 [온맵시]가 되며 된소리되기에 의해 ‘시’의 ‘ㅌ’이 [ㅈ]으로 바뀌어 [온맵씨]가 된다. 즉,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② ‘눈요기’는 ‘ㄴ’이 첨가되어 [눈노기]로 발음된다. 이때 비음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ㄴ’이 첨가될 때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리]로 발음해야 한다. ‘서울역’은 ‘울’의 ‘ㄹ’ 받침 뒤에 ‘ㄴ’이 첨가되므로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뒷마루’는 음철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뒷’의 ‘ㅌ’이 [ㄷ]으로 바뀌어 [뒷:마루]가 되고 비음화에 의해 ‘틸’의 ‘ㄷ’이 [ㄴ]으로 바뀌어 [틸:마루]로 발음된다. 즉,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22 <보기 1>은 된소리되기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24항의 ‘다만’에서는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기다’는 ‘감- + -기- + -다’로 분석되는데, ‘-기-’가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다.

23 ‘뚫리다’를 분석하면 ‘뚫- + -리- + -다’이며 어근 ‘뚫-’과 접사 ‘-리-’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이는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높이’를 분석하면 ‘높- + -이’이며 어근 ‘높-’과 접사 ‘-이’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이는 ㉠에 해당한다. ② ‘값지다’는 ‘값’과 ‘-지다’가 결합한 말로, 앞말의 원형을 밝혀 ‘값지다’로 표기하였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돌아’의 기본형은 ‘돌다’인데, ‘돌아’는 어간(돌-)과 어미(-아)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토론(討論)’과 ‘의논(議論)’은 같은 한자어인 ‘論’을 ‘론’과 ‘논’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24 ④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즉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을 할 수 없게 했다는 의미이므로 부사인 ‘못’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못하게’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음식 맛이 예전과 비교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못하다’(형용사 1)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② 대충 하는 것이 안 하는 것과 비교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못하다’(형용사 1)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③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한다는 뜻의 ‘못하다’(동사)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⑤ ‘아무리 적게 잡아도’라는 뜻의 ‘못하다’(형용사 2)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25 헤리와 인선은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흘려듣고 있지는 않다.